

서울연구원
정책리포트
170

2014. 6. 23

2014년 2/4분기 서울경제 여건 및 하반기 경제 전망

박희석

서울연구원
서울경제분석센터장

2014년 2/4분기 서울경제 여건 및 하반기 경제 전망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요약 | 3 |
| I. |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| 4 |
| II. | 서울의 2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| 7 |
| III. | 2014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| 15 |
| IV. | 요약 및 시사점 | 19 |
| | 부록 : 2014년 2/4분기 주요 조사결과 | 21 |

박희석

서울연구원
서울경제분석센터장

02-2149-1227
hspark@si.re.kr

최근 서울의 산업생산은 둔화, 내수는 현 상태 유지

최근 서울의 산업생산은 5개월 평균 0.7%로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로 대표되는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평균 3.6%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. 서울의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취업자 수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최근 5개월 평균 2.3%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.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는 최근 5개월 평균 0.6% 감소하고 있어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.

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지수는 소폭 하락,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미미

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4년 2/4분기에 전(前) 분기 대비 2.8p 하락한 95.1로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.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와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 또한 전 분기 대비 각각 2.8p, 4.3p 감소한 81.8, 59.5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하회하고 있어 현재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 「물가전망지수」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134.6을 기록하였으나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4.5p 감소하고 있어 체감경기에는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.

선진국의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로 2014년 하반기 서울경제는 3.1% 전망

2014년 하반기는 선진국의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로 상저하고(上低下高)의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0.2%p 성장한 3.1%로 예상된다. 2014년 하반기 민간소비지출 증가율 또한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된 상반기 2.4%보다 0.3%p 상승한 2.7%로 전망된다. 최근 5개월간 증가하고 있는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하반기 2.0%로 상반기보다 0.4%p 상승할 전망이다. 또한 대기업의 하반기 공채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실업률은 상반기 대비 0.4%p 감소한 4.2%로 예상된다.

서울형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의 강화가 필요

서울의 민간소비 회복을 위하여 서민금융 지원 및 노후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의 생활수준 개선이 필요하다. 안정적인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. 또한 ICT 융·복합을 통한 서울형 창조경제 구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, 중소기업의 R&D 지원 강화 및 지역 거점 간 산업클러스터 네트워크화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.

I.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

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고용은 다소 주춤

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는 4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

- 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는 최근 5개월 평균 0.7%로 1% 미만 성장
- 「산업생산지수」는 2014년 1월 -14.1%로 저점을 기록한 뒤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3월 10.5%로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4월 들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
- 2, 3월 모든 재별 생산지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비교적 변동폭이 큰 자본재의 급격한 하락으로 2014년 4월 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-2.0% 기록
- 부문별로 자본재와 중간재, 소비재 생산은 2014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-6.4%, -0.8%, -0.6%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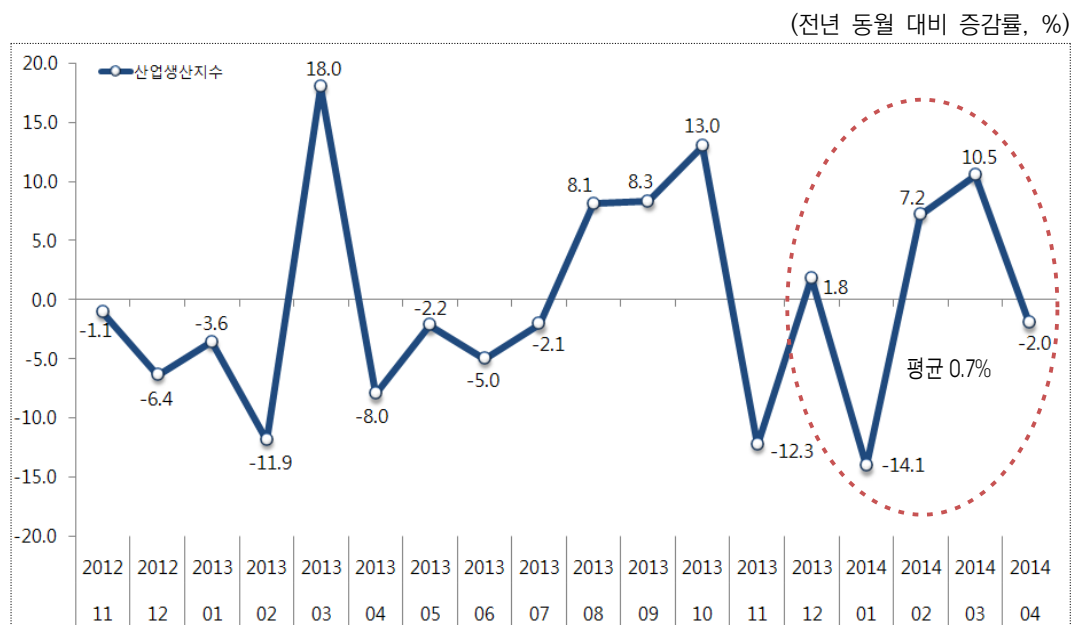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서울의 산업생산

자료 : 통계청

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최근 5개월간 평균 3.6% 증가

-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2014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5.5% 증가
-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-1.3%,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14.4%를 기록하고 있어 실생활용품 위주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
-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 증가율은 2014년 1월 11.0%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월 -3.6%로 급감하였으나 3, 4월 연속 꾸준한 증가세로 최근 5개월간 평균 3.6% 증가
-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감소 추세인 백화점 판매액지수와 달리 대형마트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내수 안정에 대한 대책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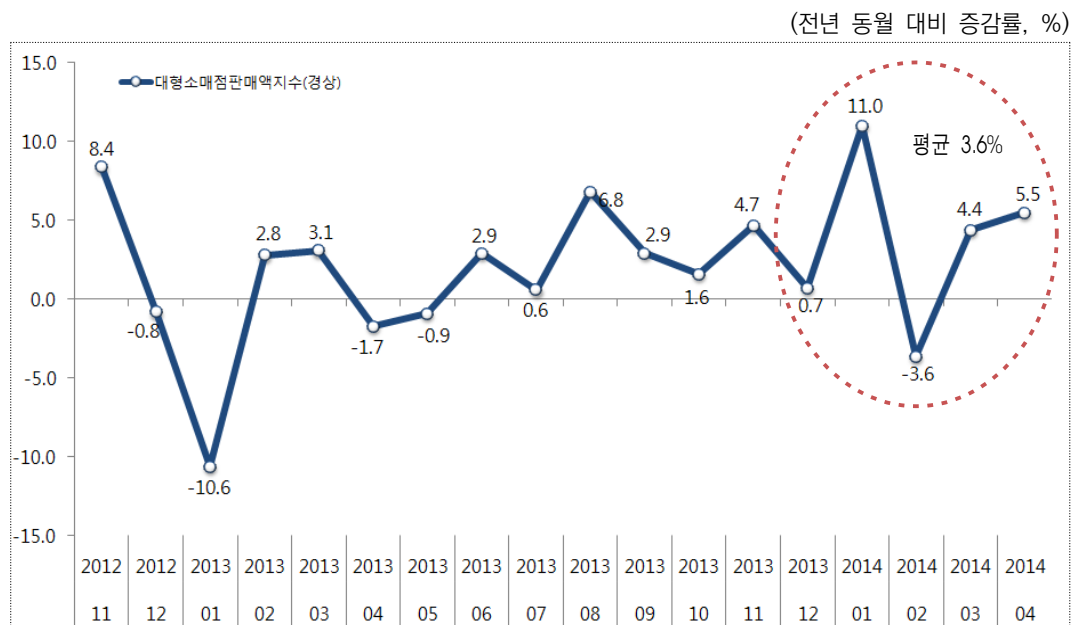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

자료 : 통계청

「취업자 수」는 1.4%로 플러스 증가세이나 증가율은 둔화

- 2014년 4월 서울의 「취업자 수」는 전년 동월 대비 1.4% 증가한 5,143명
- 「취업자 수」 증가율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3, 4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
- 2014년 4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 0.3% 감소한 862명
- 2014년 2월 계절적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8%로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율이 감소하여 최근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
- 서울의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의 증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의 취업 부진으로 성장폭이 감소하고 있어 청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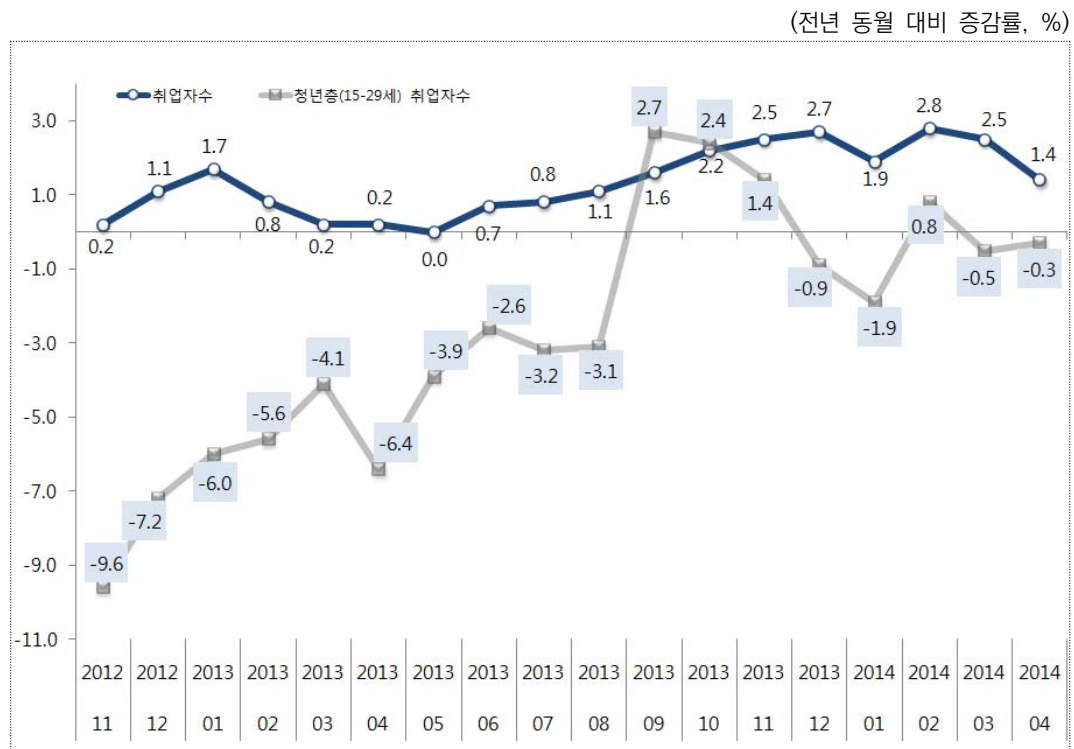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서울의 취업자 수

자료 : 통계청

II. 서울의 2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

서울시민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

서울의 2/4분기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분기 연속으로 하락세

- 2014년 2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95.1로 전(前) 분기보다 2.8p 하락
 - 2012년 3/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3년 4/4분기 102.0의 최고점을 기록한 뒤 하향세 지속
- 물가 안정화와 대외 경기 회복세 등 체감경기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여파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
-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1년이 넘게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은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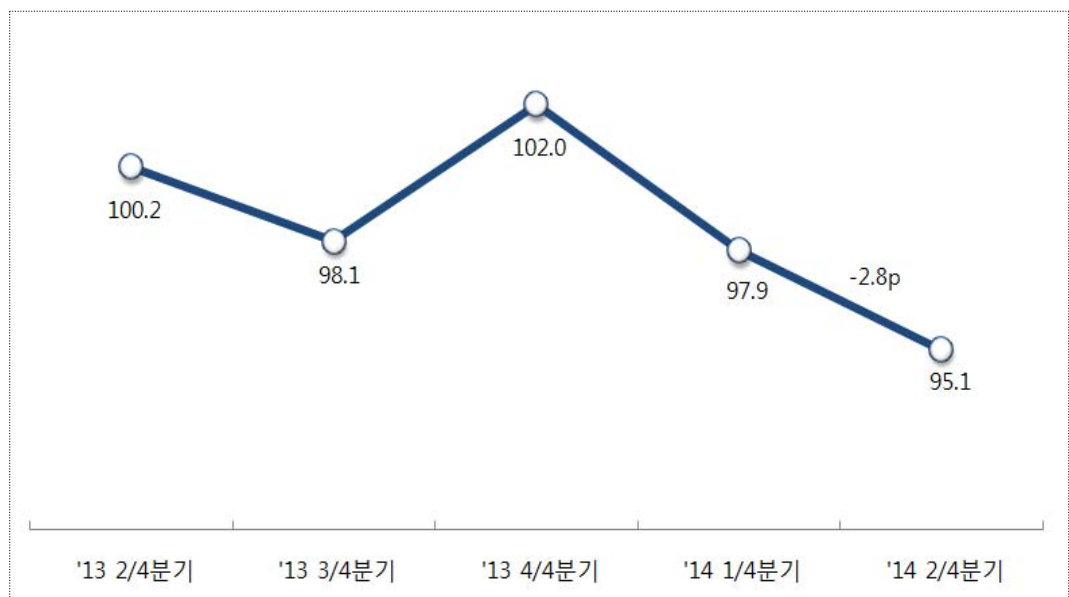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

* 2014년 2분기부터 서울연구원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표준화된 지수 값을 사용함.

서울의 현재와 미래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

- 2014년 2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2.8p 하락한 81.8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2.2p 하락한 97.5를 기록
-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1년 연속 80대 후반에서 횡보하다가 2013년 4/4분기를 정점으로 하향세 유지
-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2013년 1/4분기(105.5) 이후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 또한 어려울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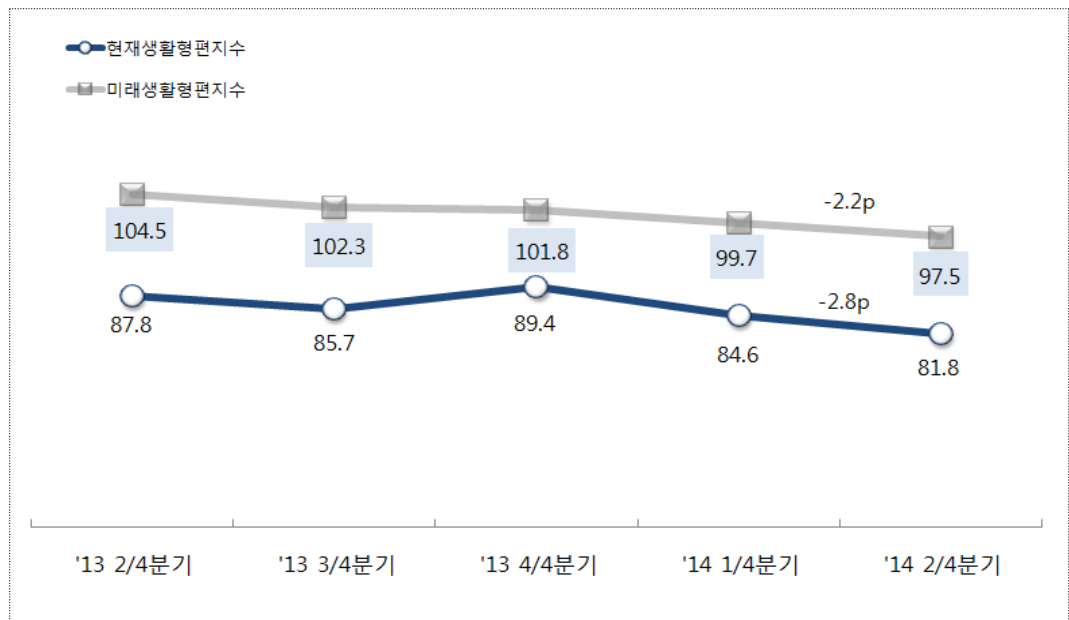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서울의 생활형편지수

서울의 현재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부정적

- 2014년 2/4분기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4.3p 하락한 59.5를 기록
-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지난해 4/4분기(71.5)를 정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경기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판단

- 2014년 2/4분기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는 90.7로 전 분기 대비 4.3p 하락
-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는 2013년 1/4분기(100.4) 이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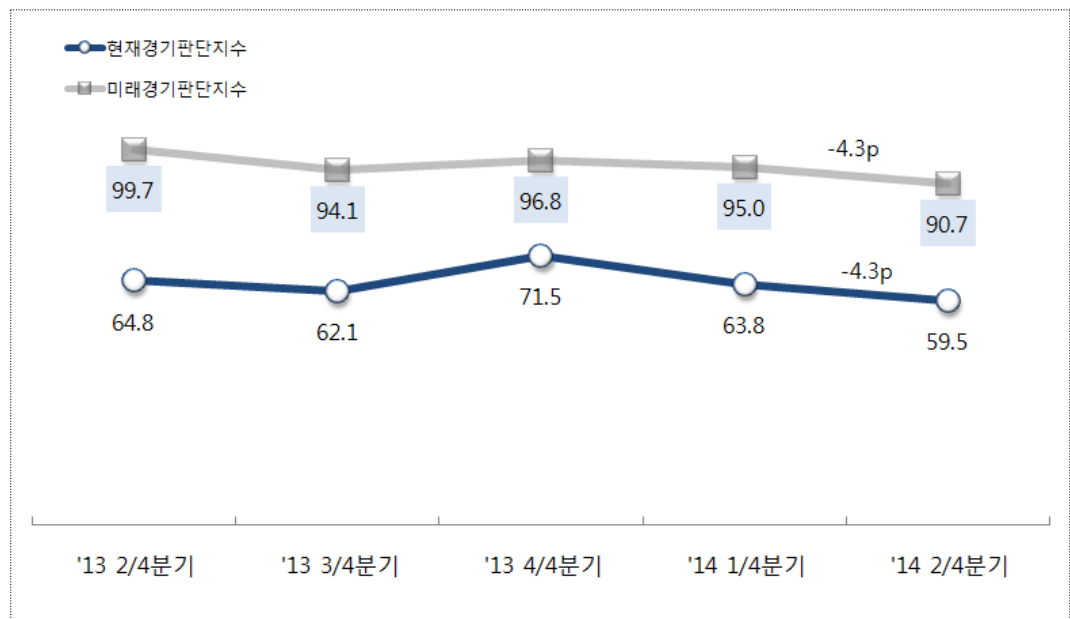


그림 6. 서울의 경기판단지수

서울의 현재 및 미래 소비지출도 다소 하락

- 2014년 2/4분기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114.5로 전 분기 대비 4.5p 하락
-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기준치(100)를 상회하고 있어 현재 지출한 돈이 1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 분기 대비 하향세로 지출 수준 감소
- 2014년 2/4분기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4.5p 하락한 99.7을 기록
-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지난 분기 104.2로 상승세의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1분기 만에 하락세로 반전하여 향후 서울의 소비지출은 줄어들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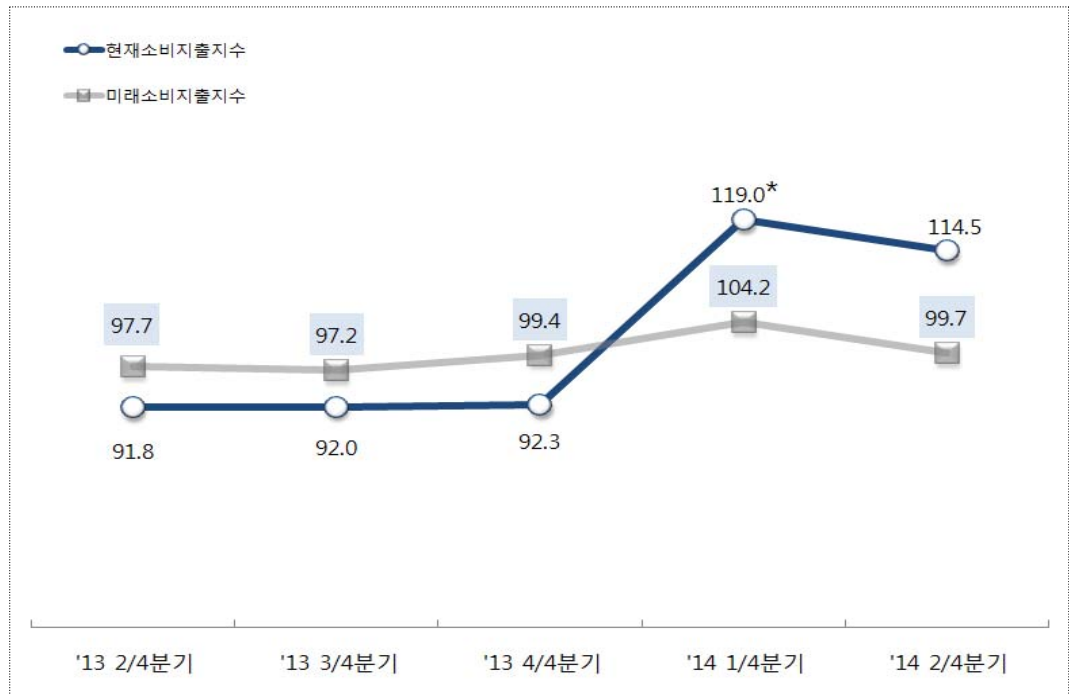


그림 7. 서울의 소비지출지수

* 2014년 조사부터 1년 전 대비 현재 소비지출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 기존 지수 값과 차이가 있음.

품목별로 보면, 모든 항목에서 지출이 감소할 전망

- 전 분기에 비해 ‘교육비’는 5.5p 감소한 116.9, ‘주거비’는 5.1p 감소한 102.3, ‘교통/통신비’는 3.5p 감소한 101.1을 기록하며 기준치(100)를 상회
- 기준치(100)를 상회하는 항목 중에서는 ‘교육비’의 전 분기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크지만 여전히 향후 가계 지출에 가장 큰 증가 요소로 작용할 전망
- ‘교육비’에 이어 ‘주거비’와 ‘교통/통신비’ 또한 전 분기 대비 미래 소비심리는 감소하였으나 향후 지출 계획은 여전히 증가할 전망
- ‘식료품비’는 전 분기 대비 3.6p 감소한 98.3, ‘문화오락비’는 5.8p 하락한 91.1, ‘의류비’는 3.2p 감소한 88.5를 기록

- ‘문화오락비’에서의 전 분기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크고, ‘의류비’의 지수 값이 가장 낮게 기록되는 등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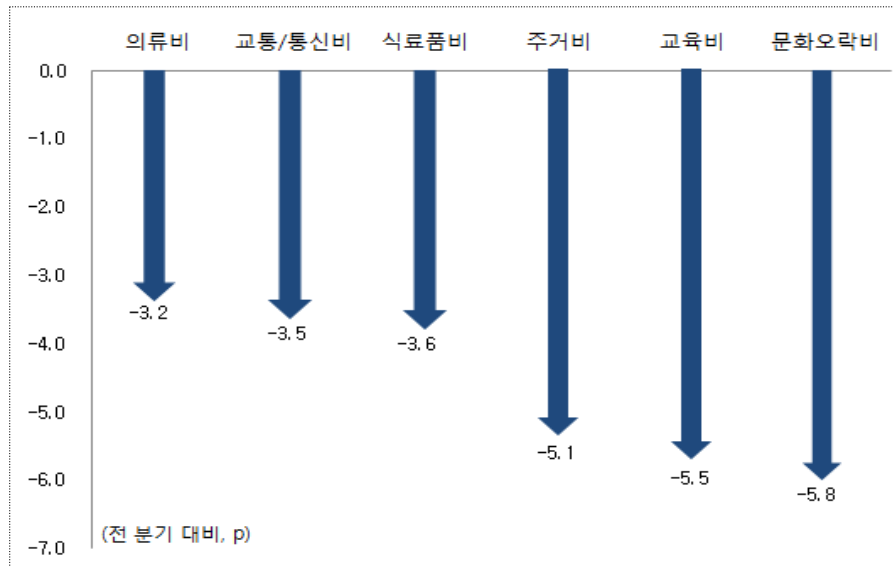


그림 8. 품목별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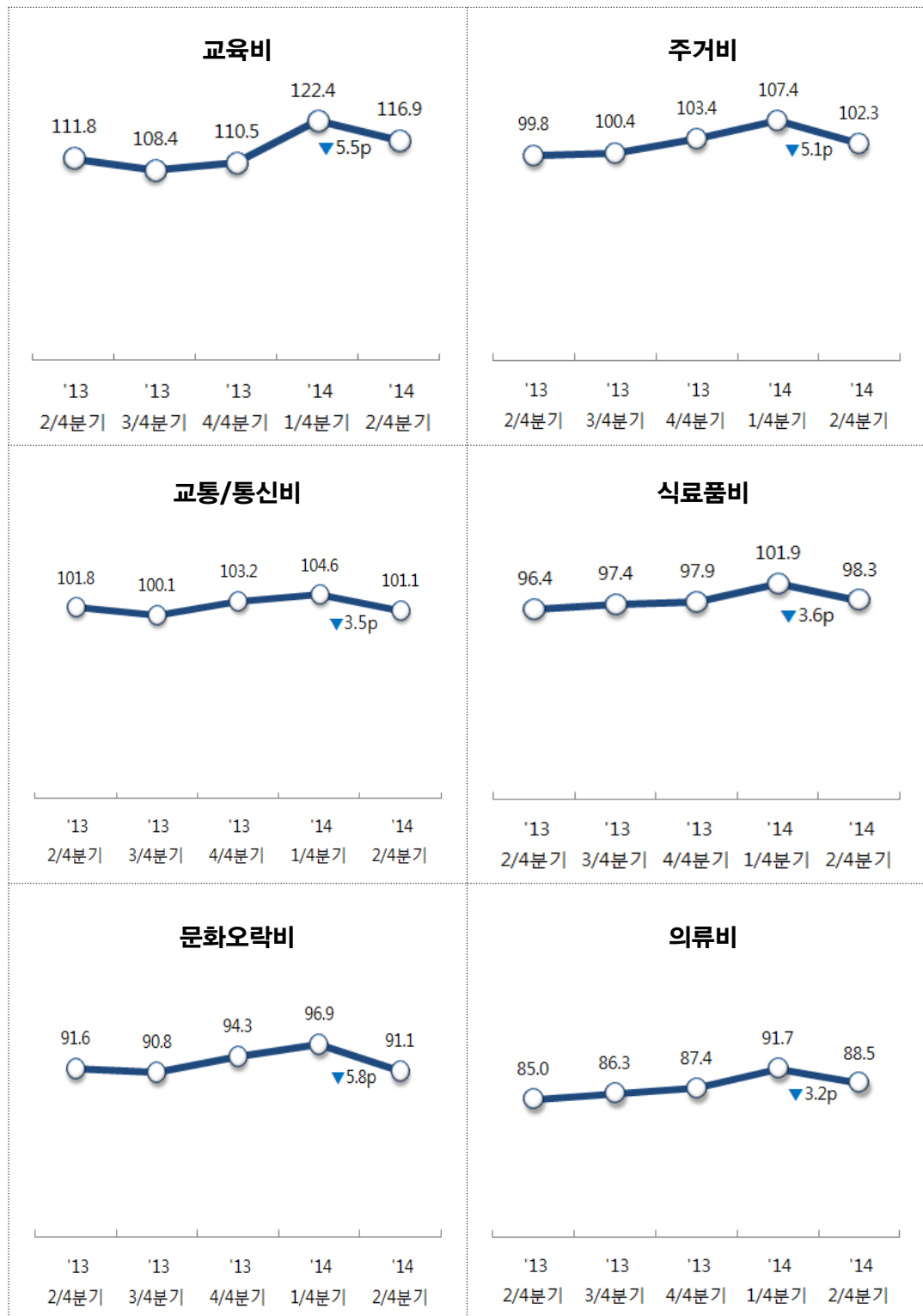


그림 9.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

서울시민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 모두 주춤

- 2014년 2/4분기 「내구재구입태도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1.2p 하락한 94.5를 기록
 - 지난해 4/4분기는 99.1로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내구재 소비는 하락세 유지
- 「주택구입태도지수」는 99.6을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1.9p 하락
 - 2분기 연속 기준치(100)를 상회하였으나 기준치 이하로 하락하며 주택구입에 대한 태도지수가 부정적으로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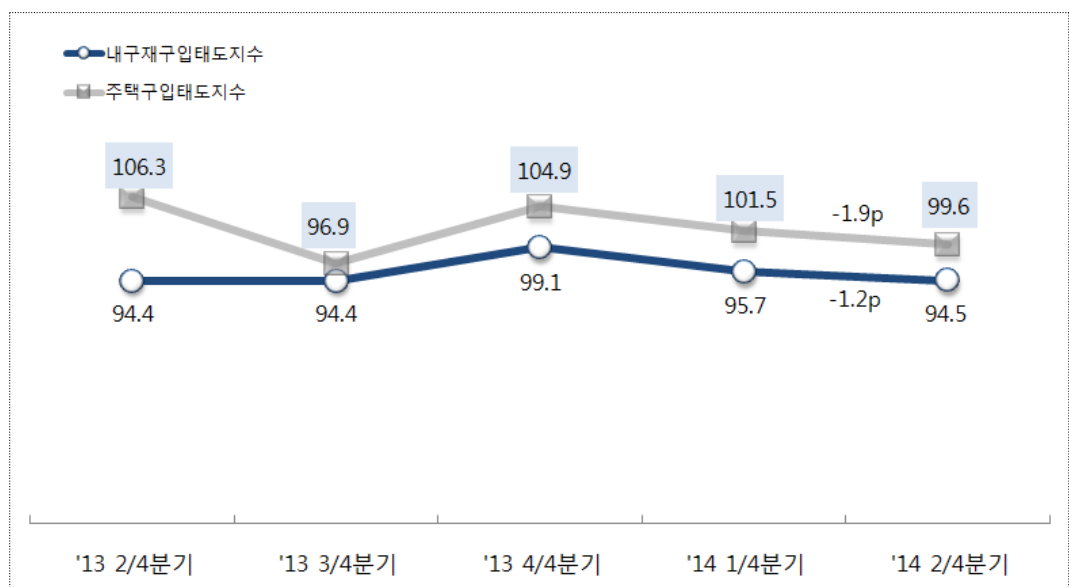


그림 10.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

체감물가와 고용상황은 하향 전망, 순자산은 소폭 오름세

- 2014년 2/4분기 「순자산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0.3p 소폭 상승한 96.7로 2013년 1/4분기 이래로 여전히 횡보세 유지
- 2014년 2/4분기 「물가전망지수」는 전 분기보다 9.2p 하락한 134.6으로 향후 물가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

- 최근 체감물가 오름세가 크게 완화되어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은 2009년 조사 이래 최저치 기록
- 2014년 2/4분기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는 85.9로 전 분기 대비 2.7p 감소
- 최근 2013년 이후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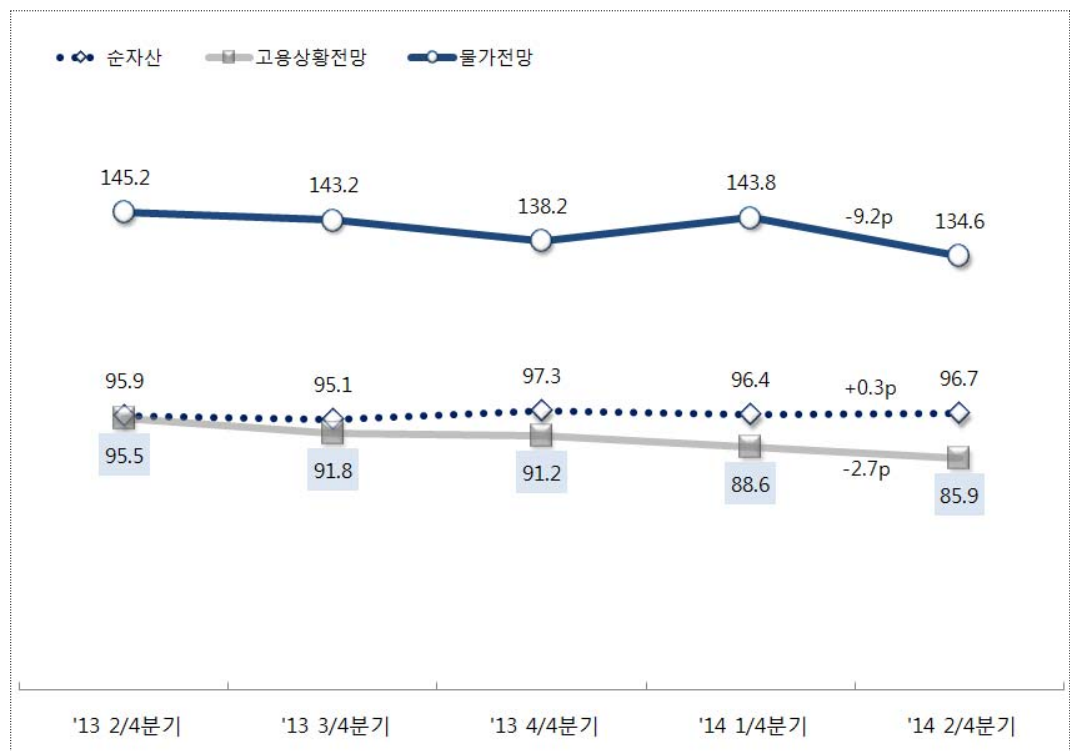


그림 11. 서울의 순자산, 고용상황전망, 물가전망지수

Ⅲ. 2014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

2014년 하반기 서울경제는 완만한 성장 예상

2014년 서울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.1%로 전망

- 2014년 서울경제는 상저하고(上低下高)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어 하반기 경제는 점차 회복하여 상반기 대비 0.2%p 상승한 3.1%의 성장이 예상
- 신흥국 경제 불안정, 엔화 약세 등 대외 위험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지만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로 주요 기관에서 전국 성장률을 3.9%로 전망하고 있어 서울경제 또한 상승세가 예상
- 2014년 하반기 서울의 성장률은 전국보다 0.8%p 하회
- 민간소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와 소비심리 부진으로 서울의 성장률은 전국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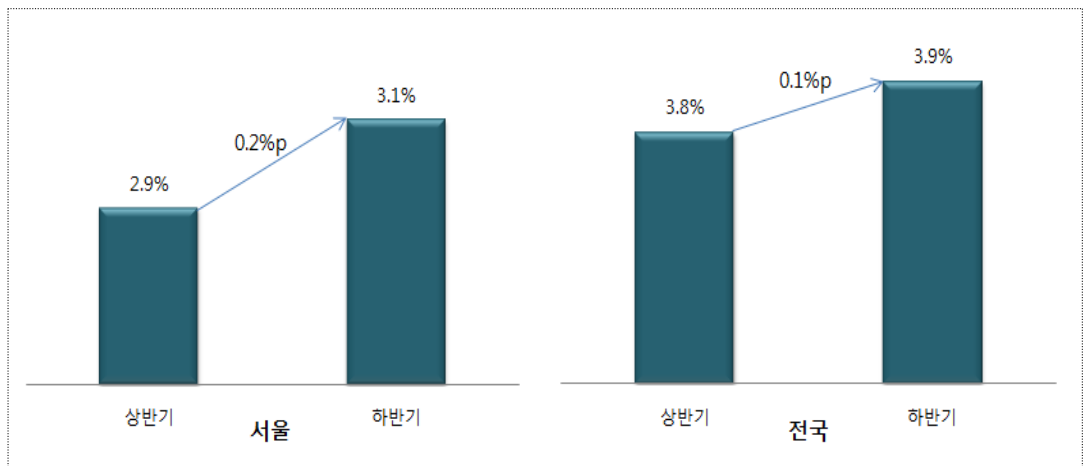


그림 12. 2014년 하반기 서울 및 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

주 :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. 전국은 한국은행(2014.4.10), LG경제(2014.4.16), OECD(2014.5.6), KDI(2014.5.27) 전망치 평균

2014년 하반기 서울의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2.7%로 전망

- 2014년 상반기 서울의 소비지출은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되어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된 2.4% 예상
- 과거 10년간 전국의 민간소비지출은 경제성장률의 70~80%를 점유하고 있고 소비 중심의 서울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하반기 서울의 민간소비지출은 2.7% 전망
- 2014년 하반기 서울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국보다 0.3%p 하회 전망
- 상반기 대비 성장 폭은 전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성장과 방향이 같은 민간소비지출은 전국 증가율보다 낮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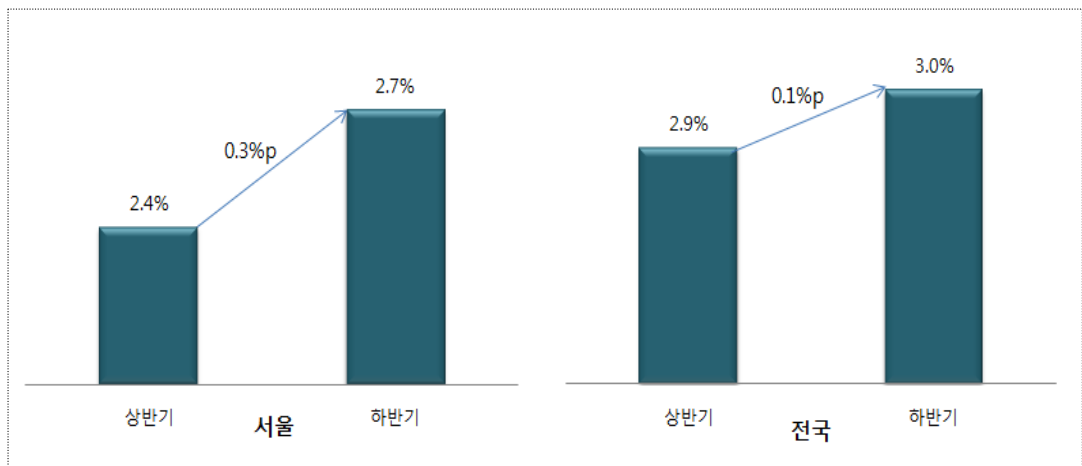


그림 13. 2014년 하반기 서울 및 전국의 소비 전망

주 :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. 전국은 한국은행(2014.4.10), LG경제(2014.4.16), OECD(2014.5.6), KDI(2014.5.27) 전망치 평균

2014년 하반기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2.0%로 전망

- 최근 5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평균 1.5%를 기록하고 있어 상반기 물가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1.6%로 전망
 - 서울경제는 점진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 물가상승률 또한 상반기보다 0.4%p 상승한 2.0%로 예상
- 2014년 하반기 전국의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0.1%p 하락한 2.0%로 예상
 - 최근 유가 안정세 지속 등의 물가 상승 요인의 부재로 2011년 4.0% 상승률을 보였던 전국 물가는 2013년 1.3%로 급감하고 있어 주요 기관들은 전국의 하반기 물가를 서울과 동일한 수준인 2.0%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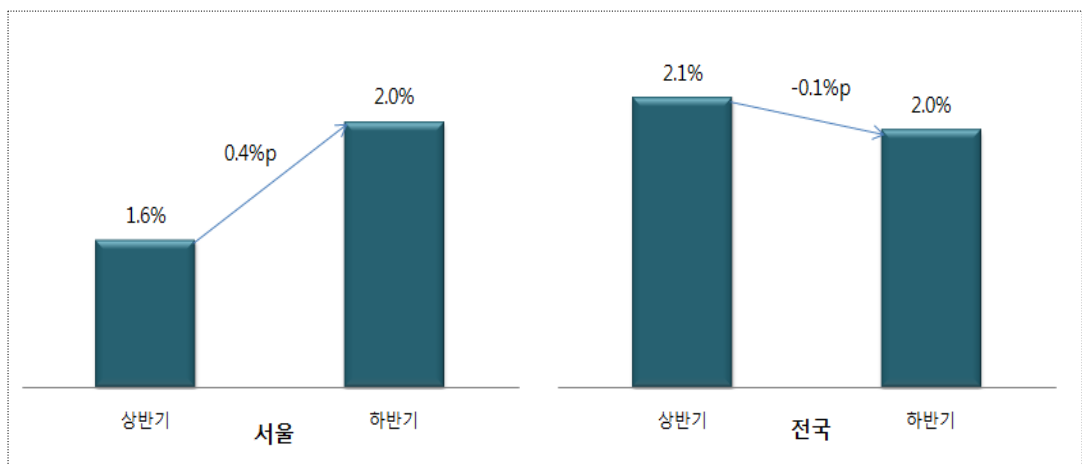


그림 14. 2014년 하반기 서울 및 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

주 :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. 전국은 한국은행(2014.4.10), LG경제(2014.4.16), OECD(2014.5.6), KDI(2014.5.27) 전망치 평균

2014년 하반기 서울의 실업률은 4.2%로 전망

- 최근 5개월 평균 4.7%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소폭 감소세로 서울의 상반기 실업률은 이보다 낮은 4.6% 전망
- 최근 청년층 취업 증감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공채와 고령층 취업률의 꾸준한 성장세에 기인하여 하반기 실업률은 상반기 대비 0.4%p 낮은 4.2%로 예상
- 2014년 하반기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 전망치 3.1%보다 1.1%p 상회
- 고용 상황 개선 등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 기조로 OECD 등 주요 기관에서 하반기 전국 실업률을 상반기 대비 0.3%p 하향 조정하고 있어 서울도 비슷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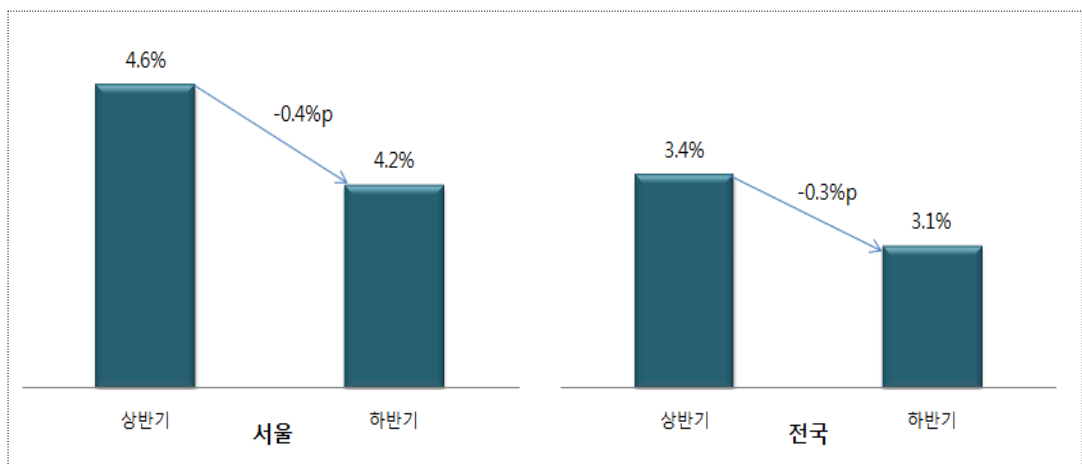


그림 15. 2014년 하반기 서울 및 전국의 실업률 전망

주 :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. 전국은 한국은행(2014.4.10), LG경제(2014.4.16), OECD(2014.5.6), KDI(2014.5.27) 전망치 평균

IV. 요약 및 시사점

선진국의 경기 회복세에 따라 서울은 하반기 3.1% 성장 전망

서울시민의 체감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둔화

-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4년 2/4분기에 95.1로 전 분기 대비 2.8p 하락
- 2014년 2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81.8,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59.5로 전 분기 대비 각각 2.8p, 4.3p 감소
- 저물가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「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」 모두 각각 1.2p, 1.9p 감소. 「현재 및 미래 소비지출지수」 또한 각각 4.5p 하락세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

2014년 하반기 서울경제는 3.1% 성장이 전망

- 2014년 하반기 서울경제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로 상반기 대비 0.2%p 상승한 3.1% 성장이 예상
- 상저하고의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의 소비지출은 상반기 2.4%보다 소폭 상승한 2.7% 전망
-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최근 5개월 평균 1.5%를 기록하며 점차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보다 0.4%p 상승한 2.0% 예상
- 최근 청년층 취업 증감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대기업 공채와 고령층 취업률의 꾸준한 성장세에 기인하여 하반기 실업률은 상반기 대비 0.4%p 낮은 4.2%로 전망

서울형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

서민금융 지원,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안정적 소득수준을 유지

- 서울의 민간소비 회복을 위하여 서민들의 소득여건 개선과 서민금융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가계지출의 부담을 감소
- 공적보증 확대 등을 통해 저신용계층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
- 중산층 및 서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 및 금융 지원을 확대
-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영세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보호
- 서민층의 자활과 청년 취약계층 취업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등을 제공
-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생활 지원 대책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공존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강화

ICT 융·복합 및 R&D 지원 사업을 통해 잠재성장력을 향상

- ICT(Information & Communication Technology) 융·복합을 통한 서울형 창조경제 구현으로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
- 서울 소재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기술과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도록 R&D 지원 강화, 지역 간 산업클러스터 네트워크화 등 미래 성장 역량을 확보
- 서울의 3대 창조산업인 문화예술, 지식서비스, 장인형 산업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 및 사업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화 및 성장기반을 강화

부록 : 2014년 2/4분기 주요 조사결과

표 1.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

| | 소비자 태도 | 생활형편 | | 경기판단 | | 구입태도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현재 생활형편 | 미래 생활형편 | 현재 경기판단 | 미래 경기판단 | 내구재 구입태도 | 주택 구입태도 |
| 2013년 2/4분기 | 100.2 | 87.8 | 104.5 | 64.8 | 99.7 | 94.4 | 106.3 |
| 2013년 3/4분기 | 98.1 | 85.7 | 102.3 | 62.1 | 94.1 | 94.4 | 96.9 |
| 2013년 4/4분기 | 102.0 | 89.4 | 101.8 | 71.5 | 96.8 | 99.1 | 104.9 |
| 2014년 1/4분기 | 97.9 | 84.6 | 99.7 | 63.8 | 95.0 | 95.7 | 101.5 |
| 2014년 2/4분기 | 95.1 | 81.8 | 97.5 | 59.5 | 90.7 | 94.5 | 99.6 |

표 2.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

| | 소비지출 | | 순자산 | 고용상황 | 물가예상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| 현재 소비지출 | 미래 소비지출 | | | |
| 2013년 2/4분기 | 91.8 | 97.7 | 95.9 | 95.5 | 145.2 |
| 2013년 3/4분기 | 92.0 | 97.2 | 95.1 | 91.8 | 143.2 |
| 2013년 4/4분기 | 92.3 | 99.4 | 97.3 | 91.2 | 138.2 |
| 2014년 1/4분기 | 119.0 | 104.2 | 96.4 | 88.6 | 143.8 |
| 2014년 2/4분기 | 114.5 | 99.7 | 96.7 | 85.9 | 134.6 |

본 조사는 2008년 3/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,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, 표본의 신뢰수준은 95%, 오차는 $\pm 3.1\%$ 임(2014년 2/4분기 조사 시점은 2014년 5월 중하순).